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다른 복음은 없다 –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성경	갈라디아서 1:1-10
일시	2018년 03월 04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1:1-10)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 요약 자료♣

다른 복음은 없다 -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갈라디아서 1:1-10)

1.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1) '나 중심' 입니다. (창세기 3:4~5)
2) '물질 중심' 입니다. (창세기 6:4~5)
3) '성공 중심' 입니다. (창세기 11:1~8)

2. 틀린 복음이 있습니다.

1) 무속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1~12)
2) 점술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6:16~18)
3) 우상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9:8~20)

3. 실패할 복음이 있습니다.

1) 다른 주인을 섬깁니다.
2) 다른 인도를 받습니다.
3) 다른 집중을 합니다.
4) 다른 치유를 합니다.
5)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6) 다른 미래가 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예배하면서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만 받지 마시고 제가 질문 할 때 여러분이 한 번 그 질문에 답이 있는지... 또 그 답이 정말 나에게 인생에 완전 답이 되는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 시간 나누는... 또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 하면 저는 신앙생활 하기 이 전에는 질문다운 질문을 받아 본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 왜? 저는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죽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도 가까운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저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전혀 격어보지를 못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질문이 제게 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해본 적이 없다. 왜?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인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질문 했을 때 모르겠더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르게 질문만 받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진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거 모르고 그냥 남들처럼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당하게 된다. 그게 오늘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길'을 가고 있음에도 결국은 바르게 가는 줄 알다가 필경은 사망의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린다. 첫 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성경... 첫 성경이 '창세기'라는 성경이 나온다. 누구나 다 안다.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지은 첫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라는 사람이다. 잘 아시지 않는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그의 아내... '하와' 곧 '이브'를 지어주셨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가 있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절대 잊지마."라고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약속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먹지 말라한 이 약속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겠는가? 왜 따 먹었겠는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에는 동서남북으로 풍요로운 강물과 모든 만물들이 너무 풍요로웠다. 눈만 뜨면 먹을 것... 눈만 뜨면 배고픔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겠는가?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지게 했냐?"면서...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밉다."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한다. 실수는 지가 해놓고.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꼭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얘기들을 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당연한 것 아닌가? 왜 따먹었겠는가?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의 약속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대충 들어 버리면 각인 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지 않은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건들면 넘어가게 되어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내 생명의 약속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건드린다. 누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가 말씀을 이용한단 말이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귀도 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생명처럼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거다. '에이, 그래도 되겠지. 뭐...' '하나님이 한 번 봐주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고... 그런게 아니다.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언약을 놓치면 죽는 것이다. 그걸 마귀가 알고 있다.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게 뭔지 아시는가? 말씀 제대로 붙잡지 않을 때 건드린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죽을지도 모른데" 그거를 마귀가 '옳거니!' 하고 올무를 걸어버린 것이다. 함정에 빠트리는 것이다. "아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거야." 그 때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좋게 보이는 거다.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따먹어 버렸다. 범죄해 버렸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언약을 놓친 결과를 아담과 하와는 몰랐다. 언약을 놓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담과 이브는 전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인간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겪게 되고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수고해도 끝이 없는 노동이 계속 됐다. 그런 저주를 아담과 하와는 언약 놓친 결과로 이어질 것을 알았겠는가? 몰랐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대충 듣지 마시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각인하시라. 뿌리 내리시라. 체질화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고 우리 인생은 망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잘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 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부여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계속 뭐만 됐다고 하는가? 고통이 계속 됐다. 신기하지 않은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왜 계속 했는가?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대국인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당한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앗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를 않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 유다를 삼켜버리지를 않나. 결국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고관들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딱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밖은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로 다 흩어졌다. 국가가 1948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했다.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을까? 오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으시는가? '어... 그건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 우린 한국 사람인데? 우린 미국 사람인데? 아니 우린 상관없는데?' 정말 그렇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거울이고, 말세를 사는 본으로 주었는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안 받고... '우리교회의 말씀'으로 안 받고... 우리 후손들이 안 붙잡아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다. 왜 그랬겠는가? 왜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됐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과 똑같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세상이 좋아보였다. 우상이 좋아보였다. 눈에 보이는게 좋았다. 결국은 뭘 놓쳤는가? 근본적인 약속...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놓친 결과다. 그것을 흩어진 디아스포라, 렘넌트로서 흩어진 그곳에서 알게하신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다. 신약의 역사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자 세 번째 질문한다. 여러분, 지금 중세교회를 아시죠? 313년 이후부터 약 1500, 1600년까지 약 천년 동안... 천년동안 유럽과 전 세계를 장악했던 교회가 있었다. 그걸 '중세교회'라고 한다.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다. 그게 '중세교회사'가 있다.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리고 이 후에 마틴 루터로 인해서... 칼빈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했던 많은 개신교회. 교회들이 중세교회가 놓쳤던 것과 개신교에 있는 현대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두 가지를 말하면 싫어한다고 한다. 하나는 뭐냐 하면... 축복을 얘기 해야지 지옥 얘기하고 저주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런다. 또 하나... 예수 얘기 그만 하라는 것이다. '아... 뭐, 옛날 2천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우린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얘기 하지 말란다. '오직 예수... 아이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시대에 사는데... 왜 예수만 말하냐?' 그러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한다. 정말 그런가? 요즘은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해서 모든 종교가 연합 하자는 그런 운동들이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른 단체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 함께 가는거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듣기는 좋죠? 그 결과로 이 땅에는 계속 되는 전쟁과 재앙이 계속 되고 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인 것처럼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 아래 계속 영육간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지금. 이 세 질문의 결론이 뭔지 아시는가?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붙잡은 거... 복음이 아닌데 틀린 것을 진리로 붙잡은 거... 복음이 아닌데 실패할 것들을 생명처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물론 여러분에게도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지만... 제가 붙잡고 저를 살린 복음이다. 저는 태어나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 결국 뭔가? '하나님 없는 나'. 그럼 '하나님 없는 나'는 뭐만? 뭐를 소망해야 하는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늘 봐 왔던 것이 뭐냐? 하면 '가난'이었다. '질병'이었다. 늘~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늘~ 다투는 것만 봤다. 그러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나'와 '하나님 없는 부모'...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본 것이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은 '나'밖에 모르더라. '나', '우리', '우리 집', '내꺼'...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게 뭔가? 결국 '돈'이지 않는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뭔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뭔가? '돈' 아닌가? '맘몬(Mammon – 물질적 부와 탐욕을 의미)'이라고 하는 '돈.' 여러분, 돈 없으면 어깨힘 빠지지 않는가? 지갑에 많지 않은 돈 갖고 있으면 왠지 부끄럽지 않은가?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떤가? 불편하게 산다고 뭐라 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돈 가지고 행세하고 돈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 하고 그런단 말이다. 아니다. 사람의 기준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 크레딧(Credit)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차도 제대로 못 산다. 아파트도 제대로 못 들어간다. 집 살 때 크레딧 체크 한다. 그게 왜 그런가? 돈을 잘 갚았으면 크레딧이 올라간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크레딧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 또 신분 보장받을 때 뭘 제일 기준 삼는가? 이 사람이 스폰서 할만한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 살 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면... 스폰서가 될 사람이 되면 미국에서 보장해준다. 신분 해결해준다. 직장 해결해준다. 진로? 보장해준다. 그게 뭔가? 다 경제다. 신용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 신용... 결국은 이것을 내가 지키는 거라고 하면 뭐 해야 하는가?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려면 하이클레스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닥터가 되려고 그러고... 로여가 되려고 그러고... 세상에 프로페서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 "너는 아빠처럼 될래? 엄마처럼 이렇게... 엉?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살래? 너만이라도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거야! 미국에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되.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려면 안정이 되잖아?" 결국은 타켓이 하나다. '성공'하면 나도 살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

게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온 우리의 '틀린 복음'이다. 각인 된 우리의 '불신앙'들... 교회생활 하면서 여전히 '영적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비밀들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 '완전 결론'과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런가? 또 하나,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접하는게 당연하다.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거 문화다.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이거 문화다. 여러분이 모든 앉아있는 이런 건물/빌딩들? 다 문화이다. 그 시대시대마다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문화 중에... 제일 무서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귀신의 역사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게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우상 문화'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 그게 다 문화를 남겨 놨다. 큰 절 앞에서... 큰 동상 앞에서... 큰 형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근데 그 형상과 사상과 문화 속에는 누가 역사하는가? '세상 임금'... '세상 풍속'... 그의 영적인 문제를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시는가?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주관하는게 아니다. 세상 임금이 주관한다. 그 세상 임금이 세상 풍속, 미속, 이런 풍습... 커스텀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하는가? 살게 만든다. 그래서 경제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무속인들이 다 붙어있다. 정치인들 곁에 있다. 미국에 '뉴에지 무브먼트'라든가 어떤 많은 단체들이 그런 일을 행세하고 있다. 유명한 연예인들... 힘들지 않는가? 유명한 정치인들...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가서 찾아간다. 뭘 얘기 하면서? 힐링 얘기 하면서. 당신의 내면 세계 얘기 하면서. 당신의 인생에 참 된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치유한답시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 오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것들이 문화이다. 제가 이번에 렘넌트 대학교 박사원 때문에 하와이에 갔다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왔는데... 딱 그 부시 공항에 내려서 나오는데 나오는 입구까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보인다. 그게 뭐냐하면 모든 테이블마다 뭐가 있는지 아시는가? 타블렛이 있다. 스크린을 터치하면 얼마든지 인포메이션을... 정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다 타블렛을 양쪽에 좋은 의자에 타블렛이 쫙~ 깔려있다. 심지어 빠(Bar)에서 음료수 마시고 차 마실 때 그 앞에도 이게 있다. 터치만 하면 스크린이 바뀌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되는가? 세상의 다른 것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문화...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필터링 하지 않고 그냥 받는다. 세상 지식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터치 해서 써치 한다. 너무 쉽게 배운다. 너무 쉽게 얻는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가? 손가락이 일을 다 한다. 머리가 일을 안 한다. 요즘 손가락이 일을 많이 한다. 어느날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손가락이 일을 다 한다.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다. 생각 하는걸 싫어한다. 책장 넘기는 것을 싫어한다. 생각하는 사고가 없다. 뇌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문화로 영적인 사실들의 감각을 둔화 시키는 그런 문화가 쫙 깔려 있다. 우리는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될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에 자꾸 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간다.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은 세상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요샌 티비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메지시 들을 수 있지 않은가? 굳이 어렵게 여기까지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개스값 들여서 굳이 이리까지 나올 필요 없다. 사실은. 왜? 다 돼있으니까. 근데 집에서 스크린 보고 예배 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 얻을수 있다. 그런데 그 문화를 통해 무차별로 지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만 있는게 아니고 나쁜 것들이 더 많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쫓아 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에 집중하는가? 세상 것에 집중하는 거다.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린다.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 육신은 어느날 병이 온다. 근데 사람들은 병만 나으면 되는줄 안다.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은 어떻게 하려고? 몸만 나으면 나은 것인가? 진짜? 마음은 여전히 힘든데? 내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데?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여기 밖에 모른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없다. 우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간다. 여기에 서 있는 저로부터 모든 여러분... 태어난 순간 뭐가 정해져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심판이 있다. 심판의 결과... 결국은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 곳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텐데... 그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냔 말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돈으로 막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 지식으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니다. 딱 하나 밖에 없다. 지옥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틀린 미래로 걸어간다. 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다고 그러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러분은 땅의 것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들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한 복음의 그릇된 길로 가고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저주에서 해방하겠다고 하는 '생명의 길'이 뭔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그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다. 바울만 알면 되는가? 아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저주에서 해방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영원한 세 가지 문제. '마귀 문제', '원죄의 문제', '죽음과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원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예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결국은 예수님은 구원의 답이시다. 다른 답이 없다. 이 복음을 바울이 알았다.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들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하지 못한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라고 되어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로 '죄', '사탄', '지옥'에서 구원 받을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교란했다고 한다. 이게 뭔 얘기인가?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게 아냐. 믿음도 좋지만 거기에 따라 행실도 발라야지. 해서 따라온게 율법과 그에 따는 행동이 겹쳐져야 구원이 되는것야. 아니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행동하면 되겠냐?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야 불신자한테 덕이 되지 않겠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게 아냐. 행함으로도 받어.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믹스가 되야 돼. 얼마나 논리적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율법으로 반듯하게 살고 있는 불신자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이는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똑바로 해!" "이거 제대로 해야 되잖아! 넌 렘넌튼데 말이지..." "렘넌트는 이래야 되는거야" 뭘 얘기 하는가?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행동을 교정시키려고 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지만 삶을 강조하면

서 자꾸 우리의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아니다. 혹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다. 혹 여러분이 모자라서 다른사람에게 혹시 피해줄 수 있다. 제가 피해를 주라는 말이 아니다. 행동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다. 아주 이 비유는 굉장히 여러분에겐 충격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녀와 그리스도를 믿는 창녀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얘기다. 이게. 우린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생명...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근데 사람들은 뭘 부러워 하는가? 외형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좋아한다. 반대로 행실이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평가하는가? 우리는 창녀를 창녀로 본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다. 성경은 유일하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 창녀도 수녀도 구원 받으라는 것이다. 절대 인간은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뭐라고 했나? 그리스도란 말이다. 그 답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다시 한 번 설명한다. 1장 4절을 한 번 읽어보겠다.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다른 것을 믿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곧 뭔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이 뭔가?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는 곧 뭔가?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사단에서 건지신 '왕'.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모든 지옥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다. 왕이 되신, 제사장이 되신,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인가? 예수. 이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 구원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다. 여러분, 혼란 느끼지 마시라. 구원 받는데는 여러분의 행실이 들어가야 하나님 잘 봐주는거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 밖에 없다. "니 정말 예수를 믿냐?" "니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있다. 다른 것 필요없다. 다른 복음 없다. 예수 플러스 다른 알파가 필요없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끝났다. 그러면 우린 뭐하나?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보장을 받은 것이다. 자 결론을 맺겠다. 2018년 한 해에 중요한 두 단어는 항상 붙잡고 기도하시라.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첫 째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모든 만민에게 뭐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으로 세상 빠진 그 세상을 살릴 길은 하나 밖에 없다. 만민을 위해 깃치... 곧 뭔가? 깃발 곧 복음을 얘기한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깃발을 든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여러분은 전도자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자요 세상을 살릴 전도자요 다민족과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왜?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을 가진 자니까. 또 하나... 우리 후대들이다. 제 1, 제 2, 제 3... 앞으로 우리가 계속 렘넌트운동을 할텐데... 우리 후대운동 할텐데... 미래를 준비 해야 될테데...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시스템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대로 '아... 우리만 잘하면 되는거야.'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거라고 하셨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 그렇다면 준비하셔야 된다. 다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성도들 가슴에 없으면 세상 못 살린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창조주요 그리스도요 영원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제 뭐... 누가 뭐라든간에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을 쓰시고 저를 쓰시고 안디옥 교회를 쓰시고 렘넌트들을 반드시 쓰실 것이다. 이유는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저주에서 해방 되는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된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된 것... 다 치유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새롭운 복음... 다시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하셔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는 시간을 꼭 만드시라. 기도 할 때도 하시고... 아니면 손으로 그리던지... 성경을 보든지... 말로 외시든지. 여러분 영혼 속에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걸 돕기 위해서 1차 합숙훈련 하는 거다. 이 속에서 답을 찾고 메시지를 정리하라고. 중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많은 헌신 하셨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발판을 준비하라고 중직자 대학원도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개인이 살고, 교회 살리고, 후대의 발판 세워서 정말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휴스턴 다민족,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연 락 처: (713) 907-0854
이 메 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